

핫세이 광업소

아키타현 북부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광산 지역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천 년 이상도 전에 조업했던 광산도 몇 곳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금, 철, 납, 아연이 채굴되었는데, 은과 구리는 주로 노천 채굴 광산인 ‘핫세이 광산’에서 채굴되었습니다.

핫포초에서 은이 발견된 것은 인근 노시로시의 기모노 상인 구도 진자부로이 공이라고 여겨집니다. 1880 년대 후반 구도 씨가 담뱃재를 털어내려고 담뱃대의 금속 부분으로 바위를 쳤고, 이때 바위 속에 보이는 귀금속의 반짝임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2 년 후 은광에서 채굴이 시작되었고, 1907 년에는 동광석을 제련하기 위한 용광로가 근처에 건설되었습니다.

1908 년 이 은광에서는 1,365 명이 고용되었고, 연간 5,000 kg 이상의 은이 생산되어 당시 일본 최대의 은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 세기 전반에 걸쳐 조업은 쇠퇴하여 결국 1952 년에 폐광되었습니다. 용광로는 1989 년까지 조업을 이어갔으며, 다른 광산의 광석을 제련했습니다.

조업 시에는 핫세이 광산의 채굴과 제련 사업으로 인해 수 톤의 슬래그와 분쇄된 검은 바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은 근처 해안에서 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래는 서서히 검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은광 근처 해변은 지금도 독특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핫세이 광산이 예전에 있었던 곳은 핫포초 중앙공원으로 2008 년에 개원했습니다. 잔디 광장의 한쪽에는 높이 4.3m 의 검은색과 금색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용광로 큰 굴뚝의 10 분의 1 크기 복제품입니다.